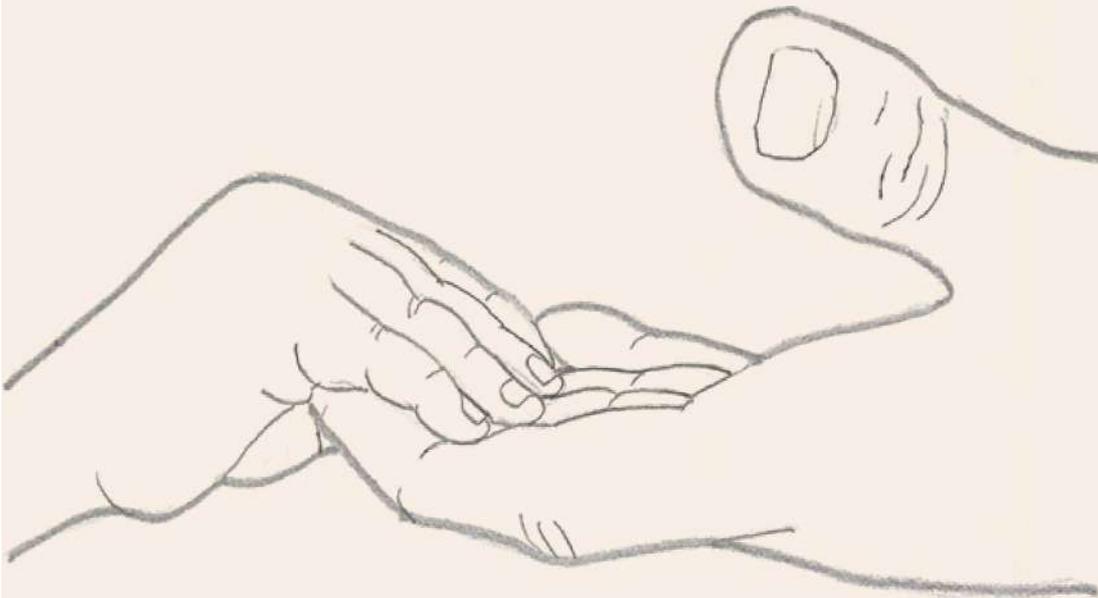


202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현안대응 1차 콜로키움

# 코로나19가 드러낸 가족돌봄과 정책과제

2020. 06. 26.(금) 14:0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F 중회의실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본 행사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위해 추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풀(Full) 영상이 제공됩니다.



# 코로나19 현안 대응 1차 콜로키움

- 일 시: 2020. 6. 26.(금) 14:00~16:00
- 장 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중회의실(2층)
- 주 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 코로나19 현안 대응 1차 콜로키움

## 개요

일시 2020. 6. 26. (금) 14:00  
장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중회의실(2층)

사회 : 고지영 정책연구실장

- 일정 14:00~14:05 참석자 및 외부인사 소개
- 14:05~14:10 인사말씀  
- 민무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 14:10~14:20 코로나19와 돌봄 팬데믹 발표  
- 손태주(본원 연구위원)
- 14:20~15:40 각 기관별 의견 토론  
- 최영열(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장)  
- 안명희(제주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 김종례(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장)  
- 이상구(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김승희(느나영 돌봄공동체 학부모)  
- 홍리리(제주여성인권연대 활동가)  
- 김인영(제주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15:40~16:00 마무리 및 폐회

## 목 차

# 인사말씀 .....	1
# 발표 .....	3
코로나19와 돌봄 팬데믹	손태주 연구위원
# 각 기관별 의견 토론 .....	9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최영열 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안명희 회장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김종례 센터장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상구 센터장
느나영 돌봄 공동체	김승희 학부모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여성의쉼터볼텍	홍리리 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인영 과장
# Memo .....	30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무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쁜 도정 활동에도 참석해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여성가족청소년과 김인영 과장님과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제주국제대학교 고보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지난 수개월 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면서, 우리나라만 해도 전국에 1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전염시켰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사회, 경제 전반의 대응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과 후는 방역과 의료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에 걸쳐 경제와 돌봄, 교육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여성의 삶과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나아갈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콜로키움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1차 콜로키움에서의 논의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돌봄현장의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지역의 현장에서 고군분투 애써주시는 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영열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장님, 안명희 제주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님, 김종래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장님, 이상구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김승희 느나영 돌봄공동체 학

부모님,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의쉼터볼텍 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돌봄 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연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7월에는 여성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2차 콜로키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앞으로도 생생한 정책과 현장과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체감형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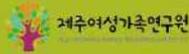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현안 대응 1차 콜로키움

# 코로나19와 돌봄 팬데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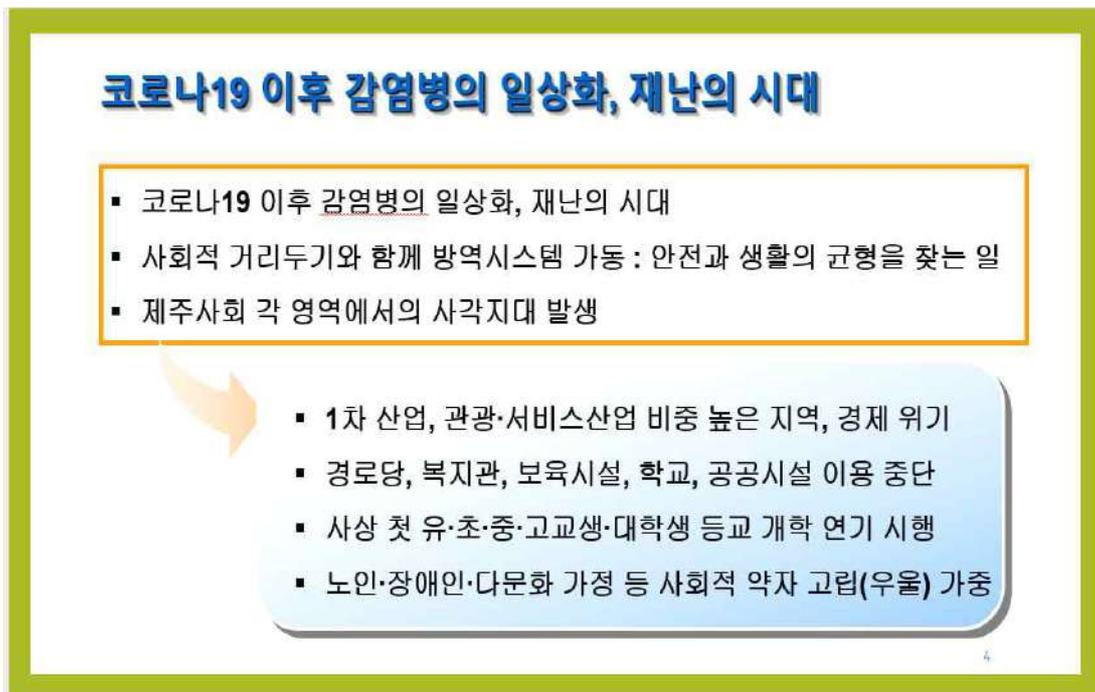
2020. 6. 26.(금)

손태주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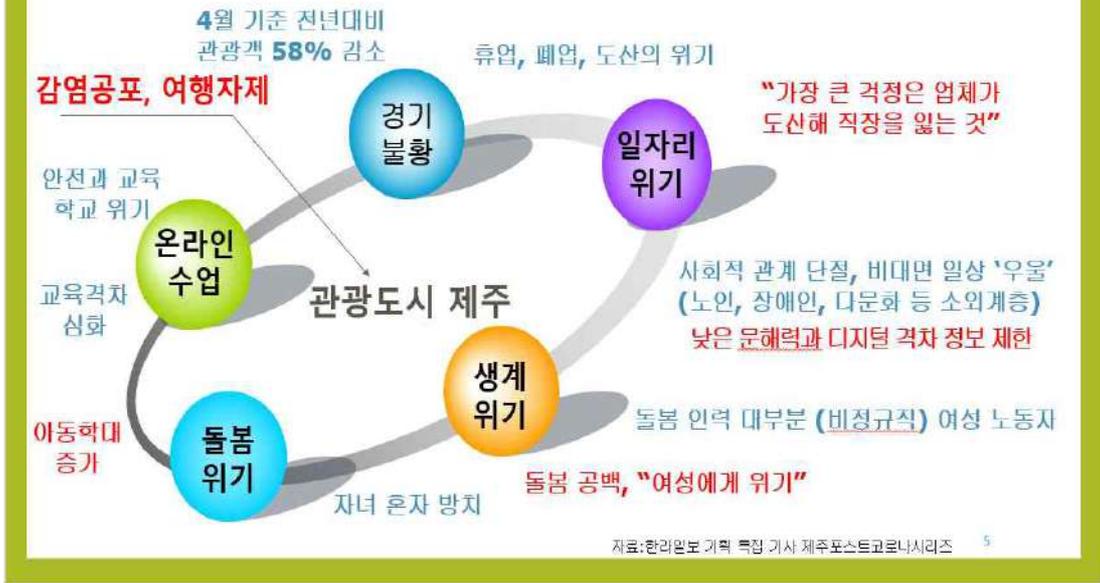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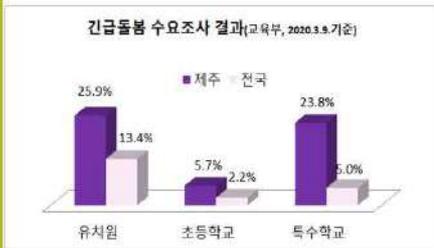
- 코로나19 국가 위기 상황, 재난의 시대
- 코로나19 팬데믹,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의 돌봄
- 지역 사회를 돌봄 연대로 재조직



## 코로나19 팬데믹, 제주 사회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의 돌봄 : 아동



- 코로나19 이후 학부모의 자녀 돌봄+교육 부담 가중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 재택근무 시행
- 가정 내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 있는 시간 늘어남
- 코로나19 이후 최근 두 달간 아동학대건수 증가



##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의 돌봄 : 장애인

- 3월 17일 제주에서 발달장애인 아들(18세)과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
- 5월 3일 광주에서 발달장애인 아들(24세)과 어머니의 극단적 선택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

제주도 장애인복지관

코로나로 장애인 복지관... 돌봄에 국가책임이 도입하라!

코로나19 장애인  
관련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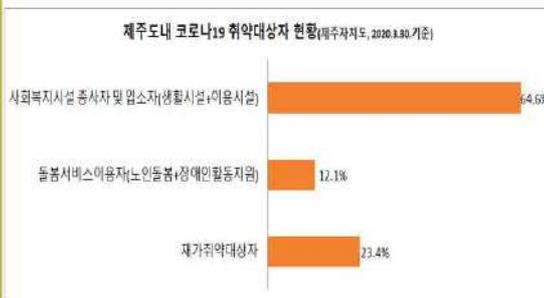
- 청도 대남병원 정신장애인 집단 감염과 연이은 사망
- 자가격리 중증장애인 지원 부재
-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발병
- 시·정각장애인 재난 시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어려움
- 장애인 이용시설 감염우려로 폐쇄→돌봄 공백 발생

제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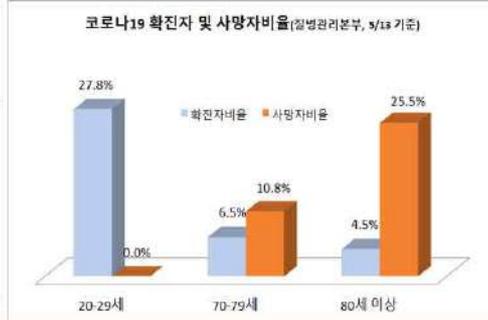
- 복지관 휴관 등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어려움
-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관계 단절, “고립(우울)감 가중”
- 여성·가족에게 전가된 돌봄 노동 가중되는 현실

##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의 돌봄 : 노인

- 면역력 저하 + 기저질환 등 감염병에 가장 취약
- 시설 폐쇄적 조치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이용 어려움
-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의 경우 ‘돌봄 공백’ 우려
- 사회관계 단절로 지루한 일상과 고립 가능성 증가



출처: 제주자치도 내부자료(N=54,651명)



##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의 돌봄 : 사회 취약계층

- 다문화가정의 자녀
  - 한국어 몰라서 자녀 학습지도 어려워
- 한부모가정
  - 주부, 생계와 양육 동시에 책임지고 있어서
- 조손가정
  - 손자녀 생활과 학습 지도 어려워
- 방문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 방역관련 물품지원 대상에서 제외



출처: 제주자치도 복지정책과 자료(N=181,778명)

9

## '돌봄재난'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돌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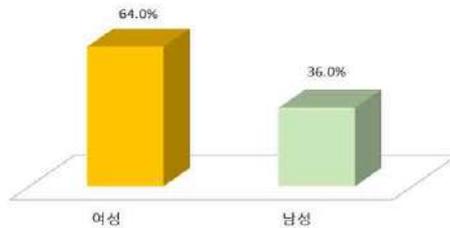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외부 돌봄 기관 휴관 → 돌봄 공백 → 여성들에게 왜 위기일까?  
 '돌봄의 사회화 이전'으로 회귀
- 전통적 가족주의에 기반된 '정상가족'안의 돌봄 → 여전히 여성에게 가중
- 또한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괄하는 데 한계 발생

'돌봄재난' 상황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돌봄 연대로의 전환

가족돌봄휴가신청자(육아정책연구소, 2020. 초3이하 부모 87명 대상 설문 결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자(고용노동부, 5/11 및 12 보도자료)



## 지역 사회를 돌봄 연대로 재조직 ①

- ‘돌봄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잠시 멈춤’이 어려운 돌봄 현실
- 돌봄 노동에 대한 평가절차, ‘사적 영역’ 혹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에 기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금,

- 다시 찾아올 재난 상황에서도 누구나 고립되지 않고 더 안전하게
- 가족돌봄휴가 등 성 평등한 제도 활용으로 일·삶 균형을 갖도록
- 돌봄노동자로서의 여성의 위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 지역 사회를 돌봄 연대로 재조직화 필요 시점

## 지역 사회를 돌봄 연대로 재조직 ②

-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은 공적 돌봄 공백과 함께 여성들의 삶의 위기로 작용
- 직장 여성들의 이중고(일·삶 불균형), 전업주부의 독박육아 등 직면 문제
- 대부분 남성보다 저임금 노동자인 여성들은 일을 그만두거나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여성들의 도움으로 공적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는 현실, 앞으로는?

이전과 다른 상호 교류·소통으로 일상에서 남녀 누구나 돌봄 연대로 전환

재난상황에도 대응, 작동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돌봄 관계로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돌봄 현장가들과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

## 토론 1.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최영열 제주시장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장

### ● 현황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은
  - 장애인이 생활하던 곳(자기집 또는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서비스 정책입니다.
-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 운영
  - 장애인지원주택사업 : 자립생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심하여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행복플래너 운영사업 : 혼자 사는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자립에 필요한 의식주, 금전관리,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과 자립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정책대상자에게 연계하는 핵심인력입니다.  
대상자에게 영양밀반찬 지원사업, 병원동행 지원, 개인별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대상자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정기적인 주택 방역,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지원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안심생활지원사업(스마트홈케어서비스) : 장애인 가정에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스마트 전등, 가스차단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보호 자 및 응급안전요원, 119에 연락해 후속 조치를 제공하고 스마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례1) 김00 뇌병변장애인 : 당사자 발열증상으로 코로나 19 의심되어 게이트웨이 119 호출(119 응급출동으로 병원이송; 단순감기 판명)

사례2) 박00 뇌병변장애인 : 당사자 당뇨환자로 당 60이하로 떨어짐, 게이트웨이 119 호출(119 응급출동으로 병원이송; 진료 후 상태가 호전되어 귀가)

사례3) 고00 지적장애인 : 당사자 뇌전증 증상으로 쓰러짐. 게이트웨이가 119 호출(119 응급출동으로 병원이송; 단순감기 판명)

- 장애인이동지원사업 :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접근성 강화 및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이동지원 시스템 제공

- 장애인가족기능강화사업 : 장애인 가족의 갈등 해소 도움 및 정서적 안정과 가족기능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장애인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정책대상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정서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적응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24시간 긴급돌봄지원사업

-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출장 등 긴급사유 발생시 장애인에게 단기간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장애, 연령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하고, 소화기 등의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 ● 애로점

- 통합돌봄 서비스는 2019년 6월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3가지 분야로 선도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다. 여기서 장애인분야는 대구 남구와 제주 제주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2월 이후로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가정방문 위주의 조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화 위주의 조사가 되고 있다
- 이러한 비대면 조사로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전수조사기간이 연장되면서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시기도 늦춰졌다. 지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통합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 이런 상황이지만 읍·면·동 통합돌봄창구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와 상담을 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행복플래너 지원사업’, ‘누리카 이동지원사업’, ‘방과후돌봄 사업’ 등 이외에도 여러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 기관은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가 있으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렇기에 통합돌봄에 대해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홍보와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주변 장애인분들 중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읍·면·동의 통합돌봄창구를 소개해주었으면 한다.

## ● 정책 요구

- 코로나19 대응에서 긴급돌봄서비스의 의미
  - 공공돌봄체계의 필요성 : 코로나19로 공공의료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반면, 공공사회서비스는 여전히 민간공급주체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공공화시킬 것인가가 중요
  - 틈새복지와 상시적 긴급돌봄체계 필요
  - 위기 속 이용자 욕구 대응
  - 지역사회, 시민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
  
- 집단시설 중심의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주택 도입 및 확대 필요

## 토론 2.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 현실

안명희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 ● 현황

- 2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조치를 통해 27일부터 지역아동센터 휴원과 긴급 돌봄 체제로 운영
- 긴급돌봄과 함께 가정돌봄 아동들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 매일 실시
- 소독과 방역을 통한 위생 관리
- 센터별 1, 2명에서 15명 내외 긴급돌봄을 통한 돌봄공백 대응
- 센터 급식과 별도로 가정 돌봄 아동들에 대한 도시락 또는 식품재료 구입 후 전달하고 있는 상황
- 6월 8일 대면개학 이후에도 변함없는 휴원조치와 긴급돌봄체제 운영 원칙을 적용 중에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아동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다문화, 조손가정 등 온라인 학습 등 지도 어려움)

### ● 애로점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휴원 조치로 인해 현장의 업무 혼란 발생
- 온라인 학습지원을 위한 인력과 기자재 부족으로 종사자 업무 가중
- 센터 내 2명의 생활복지사 업무 과다로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한 부담 가중
-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마스크 구입, 정기적인 소독과 방역을 위한 재원 마련까지 현실적 운영상황 어려움

## • 정책 요구

- 휴원 또는 긴급돌봄 통보 전에 현장과의 실현가능한 지원 방안을 위한 논의 필요
- 돌봄 수요에 대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력 배치에 대한 적극 고민 있어야 할 것임

## 토론 3. 홀로 사는 노인의 돌봄

김종래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장

### ● 현황

#### 1. 대상자수

- 중점 대상자: 363명(남 105명, 여 258명)
- 일반 대상자: 5,619명 (남 1,063명, 여 4,556명)
- 계: 5,982명
-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35명 , 생활지원사: 448명)
- 수행기관: 권역별10개 기관

※ 광역수행기관은 제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에서 동시 수행

#### 2. 주요업무

-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안전확인 및 말벗 서비스
- 방문시 어르신댁 집안팍 위험요소 제거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중점 대상자 청소, 식사준비, 병원 동행 등 가사지원 서비스 지원
- 각종 안전사고 및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교육
- 복지욕구 수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정서함양 및 우울증,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각종 노인복지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사업 알선
-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사회자원 발굴 활동

### ● 애로점

1. 코로나 19로 인해 경로식당, 경로당 운영 중단,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중단되어 거의 집에서 지내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식사 해결이 어려움과 고독감 및 무기력감 현상 심화로 인한 안전망 구축이 불안정함.

2. 대면 활동이 어려움으로 정서함양 및 건강관련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 및 여가활동 등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서적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외출 등을 자제하다보니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우울증 증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3. 혹서기가 되면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경로당을 비롯한 많은 무더위쉼터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 올여름 장기간 무더위가 이어질 거라는 기상청 예보도 전해지는 등 어르신들의 폭염에 따른 경제적, 육체적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종사자들의 업무가 더욱 가중될 수 있음.

4.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가 많이 어려워졌고 특히 상반기에는 예정된 지역 자원과의 업무협약, 정서함양 및 생필품 지원 등이 거의 취소되어 어르신들의 질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 사회와의 공동체 구성도 다소 늦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 정책 요구

1. 무연고자 및 특히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 중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어르신들이 중병이나 큰 부상을 당해 입원해야하거나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어 매우 곤란한 경우에 처해져 치료시기가 지연되거나 치료가 곤란한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따라서 종사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병원관련 동의 부분에 대해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인 경우만이라도 행정에서 책임을 져주는 정책이 필요함.

2. 어르신들의 정서함양 프로그램이나 건강관련 및 나들이 등 동행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종사자들의 어르신들을 자기 차량에 태워서 이동할 때 차량사고 등 여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종사자 본인이 질 수

밖에 없어 사업수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는 종사자들의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이나 사고에 대비해 일정부분 예산을 예치해두는 등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3. 전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형별로 데이터를 구축한 후 그에 따른 독거노인 복지정책 수립이 필요함.



## 토론 4. 코로나19 다문화가족 돌봄

이상구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 현황과 애로점 및 정책 요구

#### 1. 생활 및 경제

##### 1) 현황

- (1) 경기 불황으로 약 40% 일자리 상실
- (2) 급여 감소 및 고용에 대한 불안
- (3) 생활 유지 한계상황

##### 2) 애로점

- (1) 문화 차이 및 의사소통 문제로 재취업 난망
- (2) 질 낮은 고용형태 발생
- (3) 생계유지 고통

##### 3) 정책 요구

- (1) 실질적 의사소통 위한 한국어 교육
- (2) 직장 내 다문화 감수성 및 수용성 교육
- (3) 경력 단절 및 제한된 노동시장 개방

#### 2. 돌봄 및 교육

##### 1) 현황

- (1) 비대면 교육 일상화
- (2) 온라인 교육 시스템
- (3) 학대 및 폭력

## 2) 애로점

- (1) 주거환경 열악
- (2) 학습지원 어려움
- (3) 돌봄 부담에 따른 갈등

## 3) 정책 요구

- (1) 자녀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
- (2) 각 기관 및 단체 협력
- (3) 돌봄 패러다임 변환

## 3. 방역 및 생활 지원 연계(2월 ~ 6월)

연번	내용	물량	후원처	비고
1	손소독제	400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여 가구 배분
2	마스크	100장	서귀포보건소	센터소진
3	소독분무기	1개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센터소진
4	마스크	2100장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센터 이용자 소진
5	LS@HOME BOX	10set	초록우산	10가정 배분
6	응원키트	3set	한국건강가정진흥원	3가정 배분
7	온누리상품권	100장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5가정 배분
8	쌀, 돼지고기, 생선 등	10가정	한국전력 서귀포	150만원상당

## 4. 돌봄 및 교육활동 지원

### 1) 온라인 학습지원(방문지도)

- (1) 기간 : 2020년 4월~6월
- (2) 대상 : 초 · 중 · 고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 포함)
- (3) 지도 : 센터 방문지도사 및 직원
- (4) 내용 : 센터에서 문자로 안내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신청하거나 학교에서 의뢰하여 각 가정에 방문하여 온라인학습을 지도
- (5) 실적 : 방문지도 64건

2) 특수목적 한국어 운영계획(안)

과정	기간	요일	강의시간	비고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	2020.6. 9 ~ 7. 7.	화. 목. 금.	10:00~12:00	1개 반(진행) (비대면교육)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2020.6. 22 ~ 7. 20.	월. 수. 금.	15:00~17:00	1개 반(진행) (대면교육)
취업을 위한 한국어	2020. 6. 22 ~ 7. 20.	월. 수. 금.	13:00~15:00	1개 반(진행) (대면교육)
토픽1 (오후반) 듣기. 읽기.	2020. 6. 22 ~ 8. 17.	월. 수. 금.	13:00~15:00	2개 반(진행) (대면교육)
토픽1 (야간반) 듣기. 읽기.	2020. 6. 22 ~ 8. 17.	월. 수. 금.	18:00~20:00	2개 반(진행) (대면교육)
토픽2 (오전반) 듣기. 읽기. 쓰기	2020. 6. 22 ~ 9. 14.	월. 수. 금.	10:00~12:00	3개 반(진행) (대면교육)
토픽2 (야간반) 듣기. 읽기. 쓰기	2020. 6. 22 ~ 9. 14.	월, 수, 금.	18:00~20:00	3개 반(진행) (대면교육)
중도입국학생을 위한 한국어	2020. 6. 20 ~ 9. 19.	매주 토	10:00~12:00	1개 반(진행) (대면교육)

2)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비대면 운영계획(안)

과정 및 단계	기간	요일	시간	비고
기초단계 오후반	2020. 05. 07 ~ 05. 15	화, 목, 금	14:00~17:00(3시간)	5회(완)
초급1단계 오후반	2020. 05. 19 ~ 07. 24.	화, 목, 금	14:00~17:00(3시간)	33회(진행)
초급2단계 주간반	2020. 05. 04 ~ 07. 24.	월, 수, 금	09:30~12:30(3시간)	34회(진행)



## 토론 5. 코로나19에 노출된 아이들

김승희 느나영 돌봄 공동체 학부모

### ● 현 황

- 자녀연령 : 총 2명 / 첫째 만(10)세, 둘째 만(7)세
- 양육자 근무형태 : 전일제근무
- 자녀돌봄 서비스 이용 : 무
- 자녀돌봄 조력자 : 외조모

### ● 애로점

- 친구들과 만날 수 없다.
-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용 불가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다.
- 교감할 수 있는 놀이 활동과 스낵들이 제한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속 일하는 엄마의 부재로 혼자 남는 아이들
-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
- 외출이나 외부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대인기피 현상
- 온라인 수업 충실도나 부모개입에 따른 개인의 학습 격차 심화

### ● 정책 요구

- 온라인 수업을 홀로 수행해야 하는 아이들을 포용  
(거실과 점심 제공 가정에 대한 지원 필요)
- 가정식의 영양적 부족부분 보충 필요  
(연령별 균형식단 및 레시피 제공)
- 마스크 & 손소독제 제공
- 야외활동과 실내 활동 가능한 공동육아터 제공(ex. 수놓음육아나눔터)  
(예약제 운영)



## 토론 6. 여성폭력피해자보호를 위한 코로나 대응 정책 제안

홍리리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여성의쉼터불턱원장

### ● 정책 제안

1.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폭력피해자인 여성보호를 위해 구조에서부터 보호시설 입소까지 보호지원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전국이 코로나19로 초긴장상태에 있을 때 상담소등 이용시설은 ‘상담은 되도록 연기하고 최대한 전화상담으로 조정하며 직접 접촉을 피하기’를 주요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이 여가부와 지자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보호절차상 문제와 직접 대면상담·지원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성폭력가해자와의 분리는 여성긴급보호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코로나로 이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성긴급전화1366의 보호 상황에도 비상이 걸렸고, 그동안 공공 일자리 형태의 자활참여금을 지원받으며 자신과 자녀를 부양해 온 이용시설도 문을 닫아 생계비 곤란과 빈곤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특히 생활시설 쉼터는 정부차원의 코로나 대응지침도 없이 쉼터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외부 출입을 삼가고 이동 노선 제한’을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체제로 살고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 진단하며 매일이 고비였습니다.

또한 입소를 희망하는 여성에게 코로나는 당장의 입소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14일의 외부공간을 이용하여 관찰을 한후 ‘코로나 음성확진’으로 입소 결정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도 최대7일까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려우며 이 곳 역시도 쉼터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전한 제3의 공간이 없이는 쉼터보호도 코로나로부터도 보호가 힘든 상황입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대책”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 안에서도 개편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생활시설은 코로나, c형 감염등 집단 감염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의심으로 진단을 받을 때부터 음성확진 결과까지 14일의 자가격리를 버틸 수 있는 공간이 부재 혹은 부족한 상황에서, 2명이상 의심자가 발생한다면 쉼터내 거리 유지 문제는 이미 최악입니다. 가장 최악은 양성확진자가 발생하면, 쉼터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쉼터폐쇄 조치와 더불어 종사자들은 모두 자택자가격리로 돌입하고, 쉼터 보호가 절실한 여성들은 속수무책이 되는 초비상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보호지원안에 코로나 등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질병감염검사 필수, 자가격리를 위한 1인 보호공간 별도 마련, 쉼터입소절차를 밟는 기간동안의 여성 보호 그리고 상담소, 자활등 이용시설연계에 관한 안전대책 수립등 절차적인 여성보호에 개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마스크와 자체방역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를 받을 핸드폰 지원’도 절실합니다.

**2. 코로나의 메시지는 향후 지원시설의 공동숙소 생활방식과 공간구조를 지양하고 삶의 질 개선과 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1인 1실 구조로 변화해 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현재의 쉼터는 3~4인에서 2~3인이 1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부지원을 받아 노후화된 시설이 이전을 하고, 이전 시설보다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1실의 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여성들의 생활을 통제 관리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활지원시설인 쉼터 역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보호가 우선시 되는 구조로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편과 사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여성폭력으로부터 당연히 보호해야 할 피해자 지원시설로서의 쉼터는 여성인권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언제든지 이용가능한 쉼터가 되려면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존중되는 문화, 환경이 공존해야 합니다. 쉼터에 입소해야 할 분들이 공동생활이 불편하여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원칙과 기준 역시 이 같은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설은 이용해야 할 여성들에게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곳이 아닌, 내가 필요할 때 정말 도움을 받고 안전하게 생활하면서도 내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사생활이 보장되어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회복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쉼터라는 지원시설이 단순한 보호시설임을 넘어서 여성들 삶의 주거환경 질적 개선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생활지원시설의 근무 방식과 시설 방역대책 그리고 코로나 인권대응에 대한 변화 정책이 상담지원종사자들의 인권문제에도 적용되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쉼터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시스템입니다. 주간근무는 기본이며 야간 및 휴일 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쉼터를 이용하는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자가 격리 및 재택근무조차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을 당시 이용시설은 휴관 지침이 내려졌지만 생활지원시설에서는 개개인들의 이동 동선과 일일 방역 원칙을 지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한 상황에서 상호접촉 및 일상생활과 야간당직 등 모든 업무와 접촉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난 및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시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휴관 조치가 가능하지만 생활지원시설에 대한 대책과 지침은 부재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조건과 상황에 대해 정부의 대응 지침과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생활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어렵고 난감합니다.

24시간 365일 안전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생활지원시설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비상 재난상황에서는 마스크 무상 지급은 물론 자체방역을 넘어서 정부에서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때로는 종사자 중 누군가 감염자가 발생할 시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자가 격리 상태에 누군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24시간 운영구조에서 야간당직 근무 시스템에 차질이 빚어지고 쉼터 일상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입소인 전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리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시설의 종사자 중 누군가 감염 가능성이 발생할 시 출근을 유보한 체,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면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코로나로 인한 여성폭력방지종사자의 인권문제 역시 ‘모두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 토론 7.

김인영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Memo

Memo

Memo

Memo

Memo